

# 전남 '100원 택시' 투명성 높인다

### 연인원 100만명 이용·지역민 건강관리 등 기여 카드결제 도입...손실보상금 정산 등 불편 해소

전남도의 대표 교통복지 시책으로 전국 모델이 된 '100원 택시'가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투명성을 높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100원 택시는 지난 2014년 보성·화순 7개 마을 1,010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 뒤 2015년 14개 시·군에서 본격 운행됐다.

이후 2016년에는 19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올해 현재 22개 시·군 804개 마을, 2만4,939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

하고 있다. 연인원으로는 지난해 100만여명, 올해는 2분기 현재 56만명이 활용하는 등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영수증 분실 등 운행 손실보상금 정산 절차가 복잡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운행요금 정산 간소화 및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 단독제안서를 접수한 NH농협은행을 선정했고, 이달 중 협약을 맺고 카드발급과 정산방법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농협은행이 올 연말까지 9,5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면 2개 시·군의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00원 택시 전용 카드는 택시요금 결제 외에 금융기능이 제한되며 지자체에서 한도액을 설정하는 바우처형식의 카드다"며 "이용자의 영수증 분실로 인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요금 부담 청구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의 전남지사 재임 시절 교통복지 핵심공약인 100원 택시는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의 '민선 6기 최고 공약'에 꼽히며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 주관으로 전국에 확대 운행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6월 22개 시·군별 100원 택시 이용자 2,25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병원 검진(43.9%)과 시장(27.8%) 이용이 70%를 넘어 지역민의 건강관리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근산 기자



전남 마을로! 내일로! 청년활동가 발대식 김영록 전남지사, 이민준 도의회 부의장, 강정희·조옥현 도의원, 청년활동가들이 11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전남 마을로! 내일로! 청년활동가 발대식'에서 퍼포먼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남도음식 진수 한눈에 "바로 이맛이제"

### 오늘부터 14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에서 퍼지는 맛의 울림'을 주제로 12~14일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음식문화 축제다.

올해는 음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데 집중했다.

국방·먹방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최신 음식문화 경향을 반영해 남도음식의 격을 높였다.

유명 셰프와 남도 명인이 함께하는

'장바구니를 부탁해', 셰프들의 명품 요리 시연 및 라이브 토크쇼 '남도 맛선생', 눈으로 맛보는 '푸드 스타일링 아카데미', 어린이 음식 체험 '튼튼 먹거리 탐험대' 등이 대표 콘텐츠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새로운 단품 요리를 발굴하기 위한 음식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축제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

유명가수 초청 축하쇼와 멀티미디어 레이저쇼를 통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전자음악(EDM) 퍼포먼스, 뮤지컬 음식 난타 등은 야간에 선보인다. /정근산 기자

남도음식 전시관에서는 '뿌리에서 열매까지'라는 주제로 주제관·명인관·시군관을 운영, 아름다운 상차림을 전시한다.

전시관에 마련된 별미방에서는 남도 음식 명인들이 직접 알려주는 쿠킹클래스가 열려 전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11일 "전시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유명 셰프 요리 시연, 다양한 요리교실과 음식 만들기 체험 등 관람객과 소통하고 재미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 미 웰컴연구소와 손잡고 '스마트시티' 시동

### 공기질 플랫폼 기술개발...내달 1일 한국지사 유치협약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미국 웰컴연구소와 손을 잡고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 미국 웰컴연구소, ㈜그린정보시스템, 조선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공기질 플랫폼 실시간 감시·예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 컨소시엄은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IoT센서 통합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및 제작 ▲공기질 빅데이터를 분석해 단

시간 추이 예측 및 시각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개발 시제품 및 분석 플랫폼의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파일럿 사이트 구축 및 실증을 진행한다.

특히,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 미국 웰컴연구소와 11월 1일 스마트시티 공동연구 개발촉진 및 웰컴연구소 한국지사 광주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수 기자

# 시, 미술작품 기증 가이드라인 발표

### 기증자 예우기준 마련

광주시는 미술작품 기증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미술작품 기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기증을 포함한 기증자 제안과 요청사항까

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운영해온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하는 '미술작품 수집(기증)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 법조인 일부를 추가 위촉해 기증절차의 적법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증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증자 예우에 관한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예우기준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메세나 정신 홍보 ▲기증수령에 따른 회원제 운영 ▲기증자의 밤 운영 ▲기증자 세제혜택을 위한 기증품 감정평가서 발급 등 12개 항목이다. /강성수 기자

#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확대해야"

### 김기태 도의원 "광주·전남 진료비 감면 3.5% 불과"

전남도의회 김기태(순천1)의원은 11일 "일반 치과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확대와 진료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년간 광주·전남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8,556명 중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은 인원은 3.5%인 300명에



불과했다.

또 올해 광주·전남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예산 4억2,400만원 중 국비가 47%(2억100만원), 광주 시비 47%(2억100만원)인 반면 전남 도비는 6%(2,200만원)에 그쳤다. /정근산 기자

#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취임식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11일 본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3년간이다.

노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광주다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직원 모두가 함께 사업구조 혁신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노 신임 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도시계획공학박사)을 졸업했으며, 30년 가까이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분야 전문가로 후학을 양성했다. /강성수 기자

#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정종태씨 내정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정종태(57)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럽본부장이 내정됐다.

광주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정 본부장을 내정하고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정 내정자는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



하고 1984년 KOTRA에 입사,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장, 미국 시카고 무역관장, 코트라 운영지원처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광주 서중·일고 63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일시\_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6시  
장소\_ 광주 피앤제이 웨딩홀 3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27)

※ 행사진행관계로 동시 여러분들은 6시까지 입장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3회 동창회 사무국장 김준영(010-3617-8490)  
기금모금 계좌\_ 국민은행 580301-04-388629 김준영(광주 일고63회)

광주서중·일고 63회 졸업 30주년 준비위원회